

소 교리문답 제6문

1. 오늘의 공부

제6문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한분 하나님이며, 실체와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2. 꼭 읽어야 할 성구

(고후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6문과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제5문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했죠? 한분이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분뿐이라는 것이 제5문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한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성령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두 세분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보세요. ○○이가 있고, ○○이가 있고, ○○이가 있어요. 그럼 모두 몇 명이예요. 세 명이죠. 1+1+1=3이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세분이라고 해야 맞는데 왜 한분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처럼 분명히 세분으로 계시는데 한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6문의 내용입니다. 제6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다고 하죠? 신격이라는 말은, 신으로서의 자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삼위라는 말은 방금 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라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숫자의 개념으로 말하는 하나가 아니예요. 동등하다 또는 같다는 의미에서의 하나입니다. 삼위로 계시는데 본체는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교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아주 어려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독립된 완전하신 인격으로 계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세분이라고 해야 맞는데, 본체는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분(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분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은 한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을 세분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유일하시다(유일신)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분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3신종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4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세분이라고 한다면 성경과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물과 얼음과 수증기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각각 다른 물체인데 본래는 모두가 물이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물을 끓이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물이라는 것 때문에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뿌리와 동치와 가지를 가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뿌리와 동치와 가지는 각각 다른데 모두 한 나무에 붙어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삼위일체를 나무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가지고 설명도 하는데 우리에게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남편,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그래서 한 사람이 조건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두가 그럴듯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모두 틀린 설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어느 한분이 혼자 하신 일이 아니

고 세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일까요?

흔히 이 부분도 성부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성자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성령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고 이해하면서 세분이 따로 따로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대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뿐이지 어느 한분이 홀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 성령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함께 계시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는 없답니다. 사람은 둘만 있어도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삼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 뜻이 다른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나뉘지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하신 만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②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본체는 하나라는 말을 무슨 교리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교리” 라고 말합니다.

③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삼위일체”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말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뜻이며, “삼위” 라고 하는 말은 “신격(신으로서의 자격)” 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의 독립된 완전하신 인격으로 계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세분이라고 해야 맞는데 본체는 하나라고 하는 것도, 숫자의 개념으로 말하는 하나가 아니고 “동등하다” 또는 “같다” 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삼위로 계시는데 본체는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6:4)

④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 성령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삼위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십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①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서로 말해 보세요?

②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 한 대로 말해 볼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7주 : 하나님의 작정(영원한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 : 하나님의 작정(영원한 결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6. 기타 과제 (엡 1:11을 미리 읽어 오세요)